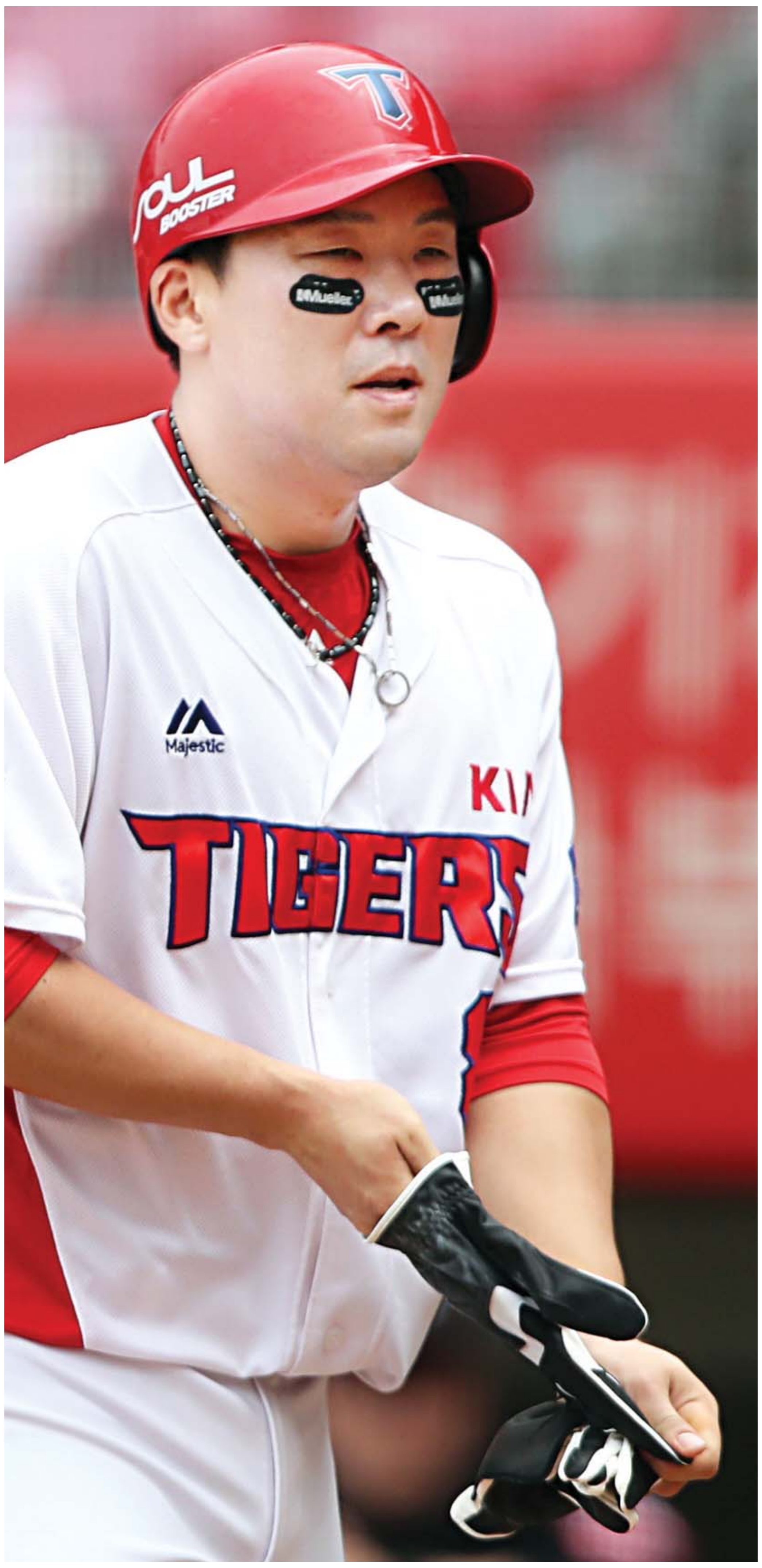
‘예비 FA 안치홍’ 손가락 부상에 시즌 마감



올 시즌 성적 타율 0.315·홈런 5개·49타점
잦은 부상에 성적 저조…규정타석도 -39
손가락 치료 전념…“주장 임무 완수 못해 죄송”

“주장으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KIA타이거즈의 안치홍이 부상으로 2019시즌을 조기에 마감했다.

안치홍은 지난 7일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손가락 통증으로 정상적인 경기력을 선보이기 어렵기 때문에 엔트리에서 빠졌다. 치료에 전념하기로 하면서 복귀 없이 올 시즌을 마무리하게 됐다.

결국, 올 시즌 408타석에 나온 안치홍은 규정타석(447)을 채우지 못하게 됐다.

지난 시즌 2년 연속 2루수 골든 글러브를 수상하는 등 최고의 해를 보냈던 안치홍은 올 시즌 ‘FA 대어’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올 시즌 0.315의 타율을 기록한 안치홍은 홈런 개수가 지난해 23개에서 5개로 뚝 떨어졌고, 결정적인 순간 해결사 역할을 해주지 못했다. 지난해 130경기에 나와 토종 2루수 최다 타점(118) 기록을 갈아치웠던 안치홍은 올 시즌에는 49타점을 수확하는 데 그쳤다. 또 11차례 실책을 기록하는 등 수비에서도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다.

부상으로 시작해서 부상으로 끝난 시즌이 되고 말았다.

시즌 첫 경기에서부터 빗맞은 타구에 손바닥을 다친 안치홍은 6월 16일 롯데전에서는 파울타구에 왼쪽 발등 부위를 맞았다. 그리고 6월 21일 LG전에서 슬라이딩 도중 손가락을 다치면서 엔트리에서 말소됐었다. 발목이 좋지 못해 정상적인 슬라이딩을 하지 못해 생긴 부상이었다.

안치홍은“올 시즌은 처음부터 부상이었다. FA이기도 하고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너무 스트레스받으면서 더 안 좋았던 것 같다”며 “팀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참고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내가 정상적으로 역할을 못하는 데, 내 생각해서 규정타석 채운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엔트리 말소에 대해 설명했다.

큰 부상은 아니지만 세밀하게 경기를 하기에 손가락 상태가 좋지 못하다. 오른손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이 인대 통증으로 송구 시 완벽하게 공을 채지 못하고 있다. 타격 그립을 잡을 때는 새끼손가락에 통증이 남아있다.

안치홍은 “큰 부상은 아닌데 민감한 부위를 다쳤다. 치료 잘하고 재활을 하면서 내년을 준비하는 게 맞다. 올 시즌 돌아보면 손가락 부상이 가장 아쉽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주장으로 끝까지 시즌을 책임지지 못한 것이 가장 마음에 걸린다.

안치홍은 시즌 중반 김주찬을 대신해 주장을 맡았다. 아마 시절 포함 처음 주장이 된 안치홍은 팀을 대표하는 선수라는 자부심으로 팀을 한데 묶는데 노력을 했다.

안치홍은 “주장인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깝다. 성격이 장난을 치고 웃고 이런 건 못하지만 후배들과 화이팅 하자고 이야기도 하고 팀에 도움이 되려고 노력했는데 끝까지 역할을 못해 미안하다”며 “팀이 좋은 모습으로 시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홈경기 ‘대참사’

선발 난타·실책 6개·황당 주루사 … 키움 히어로즈에 3-13 대패

KIA타이거즈가 넋 나간 플레이로 경기장을 찾은 7060명의 팬을 실망시켰다.

KIA가 8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3-13으로 대패했다.

적이 된 2017년 입단 동기 KIA 강이준과 키움 이승호의 선발 맞대결에서 밀렸고, 6개의 실책 속에 황당한 주루사도 기록됐다.

KIA는 고졸 3년 차 강이준을 선발로 내세워 마운드 점검에 나섰지만 2회 일찍 불펜이 가동됐다.

강이준은 샌즈에게 2회 솔로포를 맞는 등 1.1이닝 6피안타(1피홈런) 4볼넷 1탈삼진 5실점의 피칭을 한 뒤 2회 1사 1·2루에서 임기준으로 교체됐다.

지난 2016년 김세현과의 트레이드로 키움 유니폼을 입은 이승호는 친정팀을 상대로 6이닝 4피안타 2볼넷 3탈삼진 무실점의 호투를 하면서 시즌 8승째를 신고했다.

집중력 싸움에서도 완패했다.

0-5로 뒤진 3회초 KIA의 첫 실책이 기록됐다. 1루수 김주찬이 선두타자 임병욱의 타구를 놓쳤다. 이 실책을 틈타 2루까지 진루한 임병욱은 도루로 3루를 향한 뒤 서건창의 우전 안타로 홈에 들어갔다. 임병욱은 4회에는 2루수 황윤호의 실책으로 출루했다.

포구 실책을 한 황윤호는 송구 실책까지 2개의 실책을 기록했다. 또 KIA는 3루수 고장혁, 박찬호의 포구 실책까지 무려 6개의 실책을 쏟아내면서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줬다.

7회에는 황당한 주루사까지 겹쳤다. 6회까지 5개의 잔루만 남기고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던 KIA가 7회 이장진의 볼넷을 시작으로 모처럼 공세에 나섰다.

대타 최원준이 우익수 플라이로 물러났지만 한준수의 땅볼을 3루수가 잡지 못하면서 1사 1·2루. 이어 KIA가 오정환의 중전안타로 만루를 채웠다.

타석에 선 박찬호가 우중간을 가르는 타구를 날렸지만, 기록은 황당하게도 우익수 땅볼이 됐다.

박찬호의 타구로 3루에 있던 이장진에 이어 2루주자 한준수까지 홈을 밟았지만, 앞서 이장진이 멈칫한 사이 2루로 향하던 오정환이 1루로 귀루를 했다. 2루로 가던 박찬호까지 덩달아 1루로 돌아오면서 오정환이 아웃됐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2타점 2루타로 기록될 박찬호의 타구가 결국 우익수 땅볼로 둔갑했다.

키움의 두 번째 투수 안우진을 공략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에서 나온 진기한 주루 실수 탓에 KIA의 분위기가 차게 식었다.

박찬호는 2-13으로 뒤지던 2사 2루에서 맞은 5번째 마지막 타석에서 우익수 키를 넘기는 안타를 기록했지만, 동료의 아쉬운 주루플레이로 안타 하나를 날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양현종 ‘KBO 8월 MVP’

KIA타이거즈 양현종이 다시 한번 KBO리그 월간 MVP에 선정됐다.

양현종이 KBO와 KBO리그 타이틀스폰서인 신한은행이 공동 시상하는 2019 신한은행 MY CAR KBO 리그 8월 MVP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5월에 이어 올 시즌 두 번째 월간 MVP 수상이다.

양현종은 한국야구기자회 기자단 투표와 신한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신한 SOL(쏠)’에서 진행한 팬 투표를 각각 50%의 비율로 합산한 결과 총점 41.74점을 획득, 36.97점을 얻은 키움 박병호를 제치고 MVP에 이름을 올렸다.

8월 한 달간 5경기에 등판해 3승을 거둔 양현종은 35.1이닝을 던지는 동안 2실점(2자책)만 하며 KBO 리그 전체 투수 중 유일하게 0점대 평균자책점(0.51)을 기록했다.

특히 8월 4일 광주 NC전에서는 단 99구로 완봉승을 거두며 올 시즌 정규 이닝 기준 최단 시간 경기(1시간 59분)를 만들었다. 지난 8월 28일 삼성과의 홈경기에서는 역대 5번째 1500탈삼진 기록을 작성했다.

MVP에 선정된 양현종에게는 상금 200만원과 함께 부상으로 60만원 상당의 신한은행 골드바가 증정된다. 또 신한은행의 후원으로 양현종의 모교인 광주동성중학교에 100만원의 기부금이 전달된다.

한편 양현종은 앞선 7일에는 ‘신한 MY CAR 월간 투수상’의 주인공이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포비스야구단·저스티스·카이로스·레드워리어스 타선 폭발 ‘8강 진출’

아로마라이프배 제9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

광주일보사·아시아문화가 주최하는 제9회 아로마라이프배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2주차 경기가 8일 함평 야구장에서 열렸다.

무등리그와 광일리그 16강전으로 치러진 이번 대결에서 포비스야구단, 저스티스, 카이로스, 레드워리어스가 8강 티켓을 거머쥐었다.

이날 첫 경기로 치러진 포비스야구단과 금호허리케인의 결과는 5회 10점을 한 번에 뽑아낸 포비스야구단의 14-5, 콜드승이었다.

포비스야구단의 박민호가 1회 투런포를 터트리면서 대회 첫 홈런 주인공이 됐다. 홈런을 포함해 1회 3점을 뽑은 포비스야구단은 4-2로 앞선 5회 대거 10점을 만들면서 승부의 추를 기울였다.

4번타자 주민수가 안타 하나 포함 3개의 사사구를 얻어내면서 4차례 출루해, 모두 득점에 성공했다.

킹가이즈를 상대한 저스티스도 1회부터 화력을 폭발시키며 11-1, 4회 콜드승을 거뒀다.

정채철이 공수에서 활약을 하며 팀 승리의 주역이 됐다.

타석에서 4번 타자로 나선 정채철은 3개의 도루까지 기록하면서 공격의 중심이 됐다. 또 선발로 나서 4이닝을 1실점으로 막으면서 저스티스의 8강을 이끌었다

카이로스는 공·수에서 칠우야구단을 압도하면서 11-0, 4회 콜드승을 완성했다.

카이로스 선발 김태호가 2이닝을 무실점으로 책임졌고, 두 번째 투수로 나온 임홍석도 3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는 등 2이닝을 퍼펙트로 처리했다.

칠우야구단의 선발 박종근은 4이닝을 끝까지 지켰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다. 카이로스의 마운드에 막힌 칠우야구단에서는 윤남근 홀로 안타를 기록했다.

강우로 6회까지 승부를 펼친 레드워리어스와 뉴욕야시장은 팽팽한 힘겨루기 끝에 추첨으로 승부를 가려야 했다.

8점씩 주고받은 뒤 추첨이 진행됐고 레드워리어스가 6-3으로 앞서면서 8강에 진출했다.

레드워리어스가 0-1로 뒤진 2회초 이기민의 안타를 시작으로 대거 5점을 뽑아냈다. 하지만 2회 3개의 실책을 기록하는 등 5-5 동점을 허용했다. 이후 3점을 추가한 두 팀은 약속된 6회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추첨으로 승자를 결정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무등기 2주차 전적

◇1경기(5회 콜드승·무등리그 16강전)
포비스야구단 3 0 1 010 -14
금호허리케인 0 1 0 1 3 - 5
▲승리투수 : 양하성 ▲홈런 : 박민호
(1회 2점·포비스야구단)

◇2경기(4회 콜드승·무등리그 16강전)
킹가이즈 0 0 0 1 - 1
저스티스 7 3 0 1 - 11
▲승리투수 : 정재철

◇3경기(4회 콜드승·광일리그 16강전)
카이로스 3 6 1 1 - 11
칠우야구단 0 0 0 0 - 0
▲승리투수 : 김태호

◇4경기(광일리그 16강전)
레드워리어스 0 5 0 1 0 2 -8(추첨승)
뉴욕야시장 1 4 2 1 0 0 - 8

“어딜 다시 와” 8일 오전 함평야구장에서 열린 제9회 무등기 사회인야구 광일리그 16강 전 킹가이즈와 저스티스와의 경기. 2회초 2사 1루 상황에서 1루주자 박주남(킹가이즈)이 도루를 시도하다 견제사 당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